

‘오픈 게이트형 아파트’ 세종시 랜드마크

분양 핫 플레이스

| 세종시 2-1생활권 ‘한신 휴플러스’

홍콩 랜드마크 ‘리펄스베이맨션’ 흡사
교통·상업·교육의 중심 ‘세종의 강남’
3.3㎡ 당 880만원 미만 ‘착한 분양가’

“세종시 부동산 투자는 미래의 꿈을 사는 행위다.” 세종시의 행정적인 랜드마크는 정부종합청사다. 그러나 세종시 주거지의 랜드마크는 ‘한신 휴플러스·제일풍경채(이하 한신 휴플러스)’가 될 듯하다. 세종시에서 유일하게 26층 아파트 건물에 한가운데를 크게 뚫어 놓은 오픈 게이트형으로 건설하기 때문이다. 아파트가 완공되면 ‘세종시에 그 뽕 뚫린 아파트?’라는 말로 세종시의 기증점이 될 것이다. 랜드마크는 곧바로 ‘집의 가치’와 직결된다. ‘한신 휴플러스’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

● ‘세종의 강남’에 위치…교통 상업 교육의 중심
‘한신 휴플러스’는 세종시의 노른자위 주거단지에 위치해 있다. 지하2층~지상29층 49개동으로 전용 59~135㎡(17.8~40.8평) 총 2510가구로 세종시 2-1생활권내 최대규모다. ‘한신 휴플러스’의 강점 중 하나는 좋은 입지조건이다. 세종시의 교통 상업 교육의 중심지에 건설된다. ‘세종시의 강남’격이다. 세종시는 중심 행정, 상업지역,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접근성에 따라 형성됐는데 이 3대 핵심요소를 모두 안고 있다. 중앙행정타운-BRT노선과 가깝고 향후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시설이 들어설 중심 상업지역과도 이웃한다.

● “그 뽕 뚫린 아파트?” 오픈 게이트형 랜드마크의 강점

‘한신 휴플러스’는 설계공모 1위 디자인으로 설계됐다. 단지 전체가 ‘이음’을 테마로 자연과 도시, 커뮤니티를 다양한 길로 이어 주거환경을 높였다. 스카이라인이 성냥갑을 벗어나 부드러운 동네 산을 연상시킨다. 특히 디자인 주거동은 26층 높이로 건축돼 건물 가운데를 오픈 게이트형 디자인을 적용해 세종시 랜드마크를 노리고 있다. 이 디자인은 홍콩의 대표 부촌인 리펄스베이의 랜드마크인 리펄스베이맨션과 흡사하다. 또 게스트하우스와 하늘정원을 이어주는 스카이라이프트를 만들어 외관뿐만 아니라 건물과 건물 사이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했다.

● 단지 바로 옆에 초·중·고…광역교통망도 인접
최근 아파트 단지에 중요한 방점을 찍는 것이 소통과 체험이다. ‘한신 휴플러스’는 휴식과 여가, 체험이 어우러진 테마파크형 아파트로 꾸며진다. 먼저 단지 내 하늘공원을 조성한다. 휴게공간이다. 또 단지 곳곳에 연못, 벽천,



세종시의 노른자위 주거단지에 위치한 ‘한신 휴플러스’는 26층 높이의 건물 가운데가 뽕 뚫려 있는 오픈 게이트형 디자인을 적용해 지역의 랜드마크로도 자리잡을 전망이다.
사진제공 | 한신공영

위치	세종시 2-1생활권 P1구역(M1블록, L1블록)
구성	지하2층~지상29층, 49개동, 총 2510가구
전용면적 (59~135㎡)	▲59㎡ 297가구 ▲75㎡ 703가구 ▲84㎡ 618가구 ▲95㎡ 67가구 ▲97㎡ 283가구 ▲98㎡ 580가구 ▲104㎡ 107가구 ▲107㎡ 67가구 ▲117㎡ 1가구 ▲135㎡ 67가구
건본주택 분양문의	세종시 대평동 264-1, 6월26일 오픈 1899-6932



빗발 등이 조성돼 도심 속 자연을 구현한다. 휘트니스센터와 골프연습장, 수영장, 실내체육관 등도 꼼꼼히 챙겼다.

안전과 친환경에서도 강점을 지녔다. 디자인 주거동의 경우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를 도입했고 태풍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 성능 1등급으로 건설된다. CCTV, 밝은 조명, 통합관제시스템은 범죄로부터 입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

단지 바로 옆에는 초·중·고교가 위치해 세종시 교육특구로 손색없다. 교통 접근성도 넘버1이다. 세종시의 양대 교통축인 1번국도와 BRT 정류장이 가깝고 당진대전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과 이웃해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에 있다.

● 3.3㎡ 당 880만원대 미만…주변엔 1000만원대
모든 조건이 뛰어나도 분양가가 비싸면 ‘말짱 도루묵’이다. 최근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됐지만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다. 예상분양가는 3.3㎡ 당 880원대 미만이다. 최근 세종시에서 3.3㎡ 당 1000만원 이상 단지들이 나타나는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싸고 그만큼 시세차익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시공사인 한신공영 건축민간영업 주교완 사무는 “한신공영과 제일건설이 손잡고 양사의 노하우를 살려 최고의 아파트를 짓겠다. 세종시는 최근 가장 뜨거운 분양시장인 만큼 좋은 분양성적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재호 기자 sol@donga.com

3분기 6만1151가구 입주 예정…3.2% ↑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5㎡ 이하 중소형주택이 89.1% 차지

올 3분기(7~9월) 전국의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은 6만1151가구(조합물량 제외)로 지난해 같은 기간 5만9168가구보다 3.2% 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 6만1151세대 중 수도권은 2만6929세대(서울 2082세대 포함), 지방 3만4222세대로 조사됐다.

수도권의 경우 7월 시흥군자(2856세대), 고양삼송(1890세대) 등 1만2277세대, 8월 인천송도(1861세대), 화성동탄2(1636세대) 등 5748세

대, 9월 고양삼송(1677세대), 수원세류(1682세대) 등 8904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방은 7월 부산강서(1277세대), 여수웅천(1660세대) 등 8789세대, 8월 대구수성(795세대), 세종시(2876세대) 등 9325세대, 9월 대전노은3(1255세대), 충남도청이전(2127세대) 등 1만6108세대가 입주할 계획이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1만7610세대, 60~85㎡ 3만6874세대, 85㎡ 초과 6667세대로 85㎡ 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89.1%를 차지했다. 주체별로는 민간 4만3704세대, 공공 1만7447세대로 각각 조사됐다.

연재호 기자

구분	합계	규모별			주체별	
		60㎡이하	60~85㎡	85㎡초과	공공	민간
전국	61,151	17,610	36,874	6,667	17,447	43,704
수도권	26,929	6,351	15,806	4,772	8,555	18,374
지방	34,222	11,259	21,068	1,895	1,895	25,330



2m 너스 상어와 1만마리 해양생물이 ‘눈앞에’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체험 다이빙’ 진행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다니는 아쿠아리움 속 바다를 체험해 보세요.’

서울 잠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수조 안을 거닐면서 해양생물을 눈앞에서 관찰할 수 있는 ‘메인 수조 체험 다이빙(사진)’을 진행한다. 체험 프로그램은 안전수칙 숙지, 기초 수중 기술 교육 및 실습, 실제 메인수조 체험 다이빙, 수료증 발급 등 90분에 걸쳐 진행된다.

5년 이상 교육과 프로그램 진행 경험이 있는 전문강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만16세 이상이면 다이빙 자격증이 없거나 수영을 못해도 참여할 수 있다. 체험 다이빙을 진행하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메인 수조는 가로 25m로 국내 최대 규모다. 2m 길이의 너스 상어를 비롯해 1만여 마리의 해양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모든 장비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제공하고 개인장비는 사용할 수 없다. 입장료 포함 1인 20만원으로 연간회원은 12월까지 15% 할인된 가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커플을 위한 프로포즈 다이빙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SNS 이벤트를 통해 7월 동안 두 차례에 걸쳐 무료 체험 이벤트 진행한 후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개설할 예정이다. 김재철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캐세이퍼시픽 ‘홍콩 여름축제 프로모션’

캐세이퍼시픽은 홍콩 여름축제를 앞두고 6월에 홍콩 항공권을 예약하는 고객 대상으로 얼리버드 프로모션과 7-8월 예약 고객 대상으로 특가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두 상품 모두 8월 31일까지 여행을 완료하는 일정이며 일부 출발 불가 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홍콩 여름축제 기간 동안 한국-홍콩 왕복 구간에 한해 마일리지를 3배 적립해 주는 ‘트리플 아시아 마일즈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8월 31일까지 진행되는 ‘홍콩 여름축제’는 ‘용선 축제’, ‘단과 이종 맥주&뮤직 페스티벌’, ‘3D 라이트쇼’ 등으로 유명하다.

강원랜드 ‘제2강원학사’ 건립 10억원 지원

강원랜드는 20일 서울 신림동 강원학사에서 강원인재육성재단에 제2 강원학사 건립을 위한 지원금 10억원을 전달했다. 강원인재육성재단은 이번 지원금 10억원을 포함, 총 130억을 투입해 2016년도 하반기에 서울 창동에 240여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제2강원학사’를 오픈할 예정이다. 현재 ‘제1강원학사’에는 폐광지역 출신 학생들은 40여명이 입학해 있다. ‘제2학사’가 문을 열게 되면 추가로 40여명이 특별 배정된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자동차 매트 청소 안해도 먼지 안나고 깨끗해...

진흙길, 눈길 밟고 청소 안해도 깨끗한 카매트 눈 비가 와도 바로 세척 한 듯 깔끔!!

운전자라면 한번쯤 아니 차를 탈 때 마다 고민 했을 것이다. 자동차 실내매트(카매트)의 오염을... 몇 일만 청소를 안 하거나 매트가 노후되면 매트속은 각종 세균과 먼지로 가득하다.

도저히 안되겠어, 매트를 꺼내 바닥에 대고 뭍을 내리친다. 내리쳐도 쏟아지는 먼지를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작은 매트에서 왜 이렇게 많은 먼지가 나올까? 그 많은 먼지는 도대체 어디로 갈까? 오염된 매트와 미세 먼지와 각종 세균은 에어컨이 나, 히터를 틀거나 창문을 열면 평상시 보다 더 심하게 차내 공기를 오염 시킨다. 자동차 실내 공기의 오염이 심각하다는 건 구매여 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필요도 없이 운전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으며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 아이가 동승한 경우라면 더 큰 걱정이다. 특수 재질의 친환경EVA 소재와 특수 코팅으로 만든 크린카매트는 눈, 비, 기와도 닦벧거나 이물질이 떨어져도 세차를 한 듯 깔끔하다.



바로 엠보싱 플록이 범접이중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매트 상판에 닦벧거나 흙 등 이물질이 떨어져도 특수 구조인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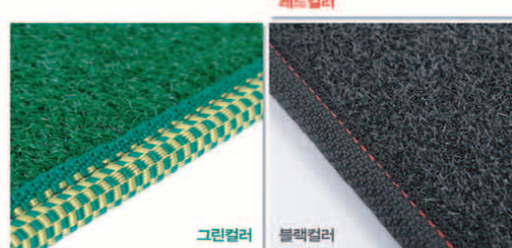
엠보싱 플록이 범접이중구조, 상판은 청소 안해도 깔끔, 이물질은 하판으로...

판으로 모여 상판은 청소를 하지 않아도 깨끗하다. 또 하판에 고인 이물질은 에어컨이나 바람에 날리지 않는다. 청소도 쉽다. 한달에서 두달에 한번 매트를 꺼내 상판과 하판을 살짝 분리해 쌓인 이물질만 털어 주면 된다.

크린카매트는 엠보싱 플록이 범접 이중구조로 미끌림이 거의 없고, 특수 코팅으로 마모가 거의 없으며 소재가 가볍고 변형, 변질이 거의 없으며, 일반 이중 매트의 가장 큰 단점인 뒷자석 중앙(자바라매트)의 부자연스러운 변형이나 들뜸 현상이 있어 불편하고, 보기에도 안 좋아 보였던 단점을 특수 재질의 고무 소재로 완벽히 보완 했으며 맞춤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잘 만들어졌으며, 뛰어난 기능으로 운전자의 건강과 편의성까지 높여 전만 운전자에게 사랑 받기에 충분하다.



컬러마다 다양한 디자인의 태두리
각 컬러마다 고유의 디자인 태두리를 적용시켜 매트와 일관성 있는 디자인을 유지시켜주며 미용적품질로 높이 평가받지 않게 특하게 제작하였습니다.



액티브 매트

매트 전문 기업 크린매트에서 지난 10여년간 연구 개발 및 수많은 실제 테스트를 통해 자신 있게 선보인 크린 ‘액티브매트’가 가장 눈에 띄게 되고 있다.

최근 이중매트와 고무매트, 코일매트의 단점을 보완 하고 장점을 극대화시켜 개발된 이 제품은 NYLON BCF재질의 원사를 한가닥 한가닥 꼬아서 만든 원사에 NR+SBR을 배합한 천연 고무 소재로 만들어져 견고하며, 변형이 없고, 흠먼지 및 이물질을 잡아주어 차량 내부를 깨끗하고, 실내 공기 또한 쾌적하게 유지시켜 준다.

여기에 NR+SBR의 배합시 전자파 차단 물질과 항균제를 첨가해서 자동차 및 주변기기에 의해 발생하는 유해 전자파를 흡수함으로써 전자파로 인한 자동화장치의 오작동을 방지하고, 항균기능이 있어 자동차 내부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켜 운전자와 동승자의 건강을 보호해주는 제품이며 내구성이 뛰어나, 한번 구입 하면 차를 버릴 때까지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하게 제작 되었으며, 국산 자동차는 물론이고 수입차도 맞춤 제작 해드립니다.

국내 그 어떤 매트와 비교해도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 국산자, 수입자, 전자중 주문제작 가능
전국 생방문의 1588-8391
판매원 모집